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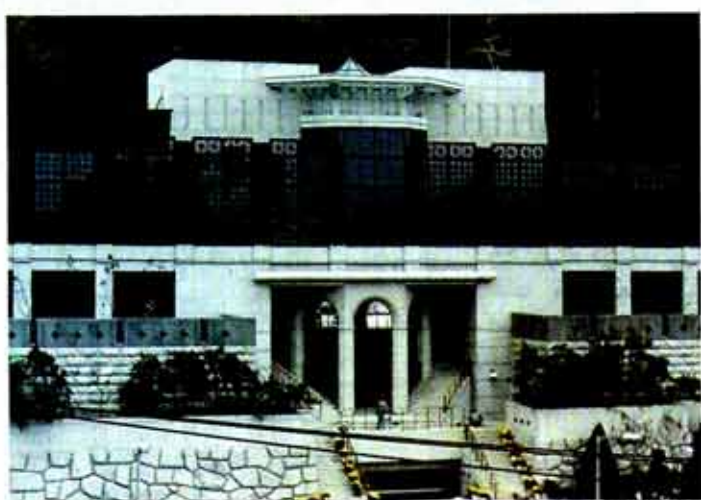
가람의 장면들

29

능인선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역력있는 전문 건축가에게 의뢰해 좁은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현대적이고도 훌륭한 도시가람으로 태어난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 전경.

현대미 풍기는 도시가람 '모텔'

'사' 할'이라면 아직도 호젓한 산 속의 고즈넉한 기와집을 연상한다. 일반인들은 물론이요, 불교 신도들이나 스님들까지도 '절집은 한옥'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 한복판에 포교당이나 새 가람을 지어아할 경우에도 한식 기와를 얹은 가람건물들이 종종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첨단 정보와 이미지에 익숙한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지어지고 있는 도시사찰들은 극적 불명의 어정쩡한 낡은 건물이며, 불교까지도 존속시킨 종교로 여겨질 수 있다.

전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의 생활에 맞추어, 교단이 우선해야 할 것은 도시 포교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물론, 포교의 방법이나 목적 등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몇 년 전 천주교에서는 명동 성당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새 성당을 건립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제 현상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 전 세계 건축계의 이목을 명동에 모았던 성공적인 행사였다. 뿐만 아니라, 웅만한 교회나 성당건축은 현상설계를 통해, 또는 명망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끌고오고 멋있는 건축을 짓기에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타 종교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번잡스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도로변 비좁은 급경사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 망밀에 지은 대법당 '특이'

정집 등을 개조한 조잡한 건축이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다. 역력있는 건축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새로운 시대적 정신과 도시의 복잡한 환경을 해결할 우수한 가람건축들이 있었다. 서울 포이동의 능인선원은 그 대표적인 예다. 능인선원의 건축가 황일인은 현재 대한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다. 어떤 경로로 그에게 설계를 의뢰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대 불교건축의 현실로는 획기적인 결단이었다. 결과는 기대보다 훌륭했다. 능인선원은 등록된 불자만도 12만여 달하는 대규모 사찰이다. 그러나 대지는 불과 900평 정도로 협소하고, 그나마 남부순환도로에 접해있는 북서면의 급경사지에 위치했다. 이 좁고 불리한 대지에 대규모 법당 뿐 아니라, 불교대학과 사회 복지시설, 사무실, 야외법당, 심지어는 대형 주차장까지 넣어야 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광범한 건축가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러나 능인선원의 건축가는 불리한 대지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까다로운 요구들을 훌륭하게 해결했다. 우선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1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했고,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법당을 지하에 만들었다. 가람에서 가장 중요한 대법당을 지하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모안이었다. 비록 지하에 있지만 천장 곳곳에 창문을 달아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계획했다. 내부가 어느 정도 밝을 뿐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빛들을 예술적으로 조절해서 신성한 법당의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다.

법당 지붕 위는 당연히 광장이나 야외법당으로 활용되고, 야외법당 주변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 건물이 들어서서, 알록 날록한 도로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었다. 뒷산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 준다. 이 선원이 위치한 대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상에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는 땅이다. 실력 있는 건축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대지 전체의 지하에 대법당을 넣을 아이디어도 실현할 수 있었고, 복잡한 여러 시설들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능인선원 건물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입구에 대형 신라식 석등을 세우는 등,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전체 구성에는 맞지 않는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인선원은 진정한 현대 도시사찰 건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가람, 새 불사를 희망하는 스님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불리한 땅에,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가람건축을 할 수 있겠냐?"고 우선 중요한 것을 대담한다. "실력있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십시오"라고.

"무관심 극복... 연대기구 창설을"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이 14일 형기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와 때맞춰 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권운동을 진관스님을 비롯한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계 전체가 관심을 갖고 연대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불교계의 인권활동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발전가능성과 그 대안은 무엇일까.

불교계 인권활동 현황과 전망

경불련·좋은벗들 등 6개기구 활동 교리우위 불구 타종교보다 열세 '평등정신 확산' 지속 관심 보여야

불교가 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전. 90년 10월 진관스님이 불교인권위를 설치하면서 불교인권운동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동안 불교 인권운동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불과 3~4년전 인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북돋워져 터져나왔을 때에도 불교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답내며 불구경하기' 식이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교계에서는 생소하기까지 했던 '인권'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았고, 불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주로 정치적 이슈에만 묶여 있던 활동방향이 외국인 근로자나 탈북난민 문제 등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된 것도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운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교계의 인권활동은 활동의 지속성이나 적극성,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인권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계 단체는 불교인권위원회, 경불련, 좋은벗들, 실천불교전국총회, 새불교운동전국총회, 전국 불교노동연맹 등 불과하다. 그러나 불교인권위원회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만을 다루는 경불련, 북한 난민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좋은벗들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곳은 없다. 연합체 성격의 기구로는 '불교장기수후원회'가 있으며, 98년에 활동했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불교대행위'와 같이 특정사안이 있을 때만 가동됐던 몇 개의 기구들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97년 출범했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1년도 지나지 않아 활동을 멈춘 상태다. 불교가 사회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인권 무지' 풍토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해 교리적으로 우위를 확



보하고 있음에도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량과 영역이 크게 뒤지는 것은 무관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불교인권위 조혜은 간사는 "개신교는 각 교단별로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조선족 교회는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천주교는 잘 알려진 대로 인권문제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불교계는 단기간 연대로 잘 안될뿐 아니라 스님이나 신도들도 거의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경불련 정진우 간사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6년간 감금됐던 नेपाल 여성 노동자가 구출됐던 사례는 불교인권활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진우 간사는 "종단차원에서 인권 실천 불교연대를 창설해 인터넷을 통한 불교인권 사랑방 개설 등 보다 다양한 접근과 함께 이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투쟁 지향적 보다 부처님의 평등사상을 집착한 사회교회 차원으로 나가려면 불교의 인권운동도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으로 현실의 사회문제를 풀고자 '초기경전 읽기 모임'이 매주 수요일 개최되고 있다.

■경불련 '초기 경전 읽기 모임'

"사회문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죠"

10여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경전을 읽고 있다. 이들은 읽고 있는 경전은 초기경전인 <쌍둥이 니까야>. 부처님이 재지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불교를 접할 수 있다. 경불련이 14일 종단할 사무실에서 문을 연 '초기경전읽기모임'을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7시~9시 불교사회운동가와 일반인을 대

한 목소리로 불교를 접할 수 있다. 경불련이 14일 종단할 사무실에서 문을 연 '초기경전읽기모임'을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7시~9시 불교사회운동가와 일반인을 대

상으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초기 경전을 함께 읽음으로써 현실의 사회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고 아울러 사상적 토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 재성 한국해탈리성전협회장과 노귀남 박사(경희대 국문학 강사)의 강의를 이어지고 참석자들 모두가 경전을 읽고 난 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토론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경불련 대외협력위원장 임효정씨는 "불교시인 운동을 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는 늘 고민스런 부분이었다"며 "이렇게 경전을 읽고 토론을 하니 부처님의 사상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불교운동가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02) 3147-2600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a.com)

奉 如來寺 萬佛殿 本尊佛 點眼法會 安

알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一山 신도시 정발산 여래사

만불전 불사를 시작한지 3년만에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지하 3층, 지상 5층 연건평 3,000여평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신도시 대중포교의 도량으로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는 본존불 점안식을 만불전에서 봉행코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佛紀 2544년 7월 日



본존불 점안 법요식

- 일 시 : 2000년 7월 2일(음 6. 1) 오전 9시 일요일
- 장 소 : 여래사 만불전
- 증 명 : 月下 大宗師(영축총림 방장) 普珠 大宗師(절보사 조실)
- 법 주 : 원명 스님(전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통도사 주지)

특별문화공연

- 일 시 : 2000년 7월 2일(음 6. 1) 오후 1시
- 장 소 : 여래사 만불전
- 공연자 : 일본 정행사 불교 아악단, 범패 임이조(인간문화재) 승무 박병천(인간문화재) - 진도 북춤, 사물놀이 변재남 대금산조 극단 神市 뮤지컬 컴퍼니 - 뮤지컬 렌트(RENT)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一山포교당

如來寺 侍者 頂宇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0 ☎(0344)905-7766, FAX (0344)905-0456